

“펜폴즈의 하우스 스타일을 캘리포니아 테루아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카베르네 쉬라즈”

펜폴즈 빈 600 까베르네 쉬라즈 더 마틱 패키지 3.0

PENFOLDS BIN 600 CABERNET SHIRAZ THE MATICK 3.0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66% 쉬라즈 34%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C		
테이스팅 노트	이국적인 향신료(tagine)의 따뜻한 아로마와 함께, 구운 마르멜로의 달콤함이 어우러집니다. 브리오슈와 애플 턴오버 같은 풍부한 패스트리 향에 하몽과 숙성 소고기의 감칠맛이 깊이를 더합니다. 붉은 대추의 상큼한 단맛과 가죽 향이 복합미를 완성하며, 부드러운 레드 프루트가 조화롭게 펼쳐집니다. 탄닌은 벽돌 가루처럼 섬세하고 질감이 부드러우며, 잘 익은 베리와 크림 같은 질감이 입안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 흰 육류 / 붉은 살 생선 / 단단한 치즈 / 훈제, 염장 음식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Bin 600은 펜폴즈의 캘리포니아 여정을 상징하는 와인으로, 남호주 유산 포도나무의 클론과 미국 땅이 만나 탄생한 카베르네 소비뇽과 시라즈의 조화로 고전적인 펜폴즈 블렌드를 캘리포니아의 하늘 아래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손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랜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